

리승환 소개

높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싫어합니다. 검열하고 통제하려고만 하죠. 심지어 한 서울시장 후보는자기 트위터 ID로 여대생, 서울시민을 사칭하며 수동RT를 했고, 컴퓨터 패스워드도 모르고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직원을 호통친 분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2MB18NOMA라는 닉을 쓰던 유저는 방심위에서 ‘아버지도 욕하지 못하는데, 나라의 아버지를 욕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2MBshfollowme, @2MBsee8nomA는 안 잡혀 갔습니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됐죠. 그리고 결국 무죄판결은 났지만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 중 주가를 5천으로 올리겠다던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선의로 이야기해서 관계 없나 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인터넷은 눈부십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교육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아련지 발음하라고 허를 굴릴 때, 엔하위키는 5만 개의 정보를 생산했습니다.

누군가가 닌텐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보라고 욕박지르고 섀다운제로 규제하는 동안, 넥슨은 이미 닌텐도의 시가총액을 넘었습니다.

돌리는 개나 고양이로 표현했어도 심의에 걸렸기 때문에 공룡이 되었지만, 심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웹툰은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경민넷 등의 평점 사이트도 자리잡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K-1으로 국민들에게 말초적 자극을 일삼을 때, 오늘의 유머는 정말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법무법인과 저작권이 있는 사진 썼다고 엄청난 합의료를 요구할 때, 블로거들은 언론이 전하지 못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외쳤습니다.

언론사들이 한진중공업 파업에 철저하게 침묵만을 지킬 때, 트위터 사용자들은 희망버스라는 기적을 이뤄냈고, 김진숙 씨는 309일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블로그와 게시판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조치할 때, 우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 속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저 똑같은 노래, 지겨운 노래라고 아이돌 노래라고 신나게 까일 때, 팬들이 올린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케이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나의 고국은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인터넷의 주인은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오고 싶습니다.